

# 임실N치즈 소시지 판로개척 모색

## 친한F&B, 우정청과 지원 방안 논의

임실N치즈 등 지역농산물을 활용해 가공·개발한 소시지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임실군 관내 기업인 (주)친한 F&B(대표 정승관)에 정청립 전북지 방우정청장이 방문했다.

정 청장은 25일 (주)친한F&B의 소시 지 공장을 직접 찾아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특산물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주)친한F&B는 전라북도의 동부 식품 산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임실N치즈를 활용한 소시지 등을 주력상품으로 하여 급성장 중인 지역기업이다.

정 청장의 이번 방문은 현장중심 고객중심으로 전북 우정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체국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특 산물 유통망 확보 지원차원에서 이뤄졌다.

정 청장은 (주)친한F&B의 대표 제품

인 임실N치즈 소시지는 임실N치즈를 비롯한 임실 고추, 임실N치즈고 추장과 순창고추장, 진안 인삼, 홍삼, 진안 마이산 목은지 등 주변 특화품을 이용한 다양한 종류의 소시지의 제조공정을 살펴보고, 관련 제품들을 둘러봤다.

임실군 대표 식품가공업체인 발돋움하고 있는 (주)친한 F&B는 제2기 동 부권식품클러스터육성사업으로 2018년 기계설비공사 등 2억 4천여만을 지원받아 운영 중인 유망업체다.

올해 열린 '2019 독일 IFFA 식품·육가공 박람회'에서 아시아 단일업체로는 최초·최고인 총 17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국내의 유력 소시지 가공업체로 주목받았다.

임실N치즈 10%를 함유한 수제 소시지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구워먹는 치즈 소시지로 특허를 획득한 임실N

치즈 브랜드 상표 사용허가를 받기도 했다.

롯데백화점 임점은 물론 에터미와 마켓컬리 등 유력 판매처를 다수 확보하는 등 유통망을 크게 확대 중이다.

이날 정 청장의 방문과 함께 우정청은 우체국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특화제품인 (주)친한F&B의 임실N치즈 소시지와 특화품을 홍보하고 판로를 개척, 배송할 계획이다.

정 청장은 "우체국은 국민에게 우편과 택배로 꿈과 행복을 전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임실 치즈 소시지처럼 지역 내 특산품의 판로를 적극 지원하여, 지역과 상생·발전하는 우정청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승관 대표는 "친한F&B도 국민에게 건강과 행복을 주는 식품을 만들고 지역과 나라에 봉사, 환원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화답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 아름다운 동행 행사

## 10월 2일 사랑의 광장서 치매예방 및 관리 관심 유도

남원시는 오는 10월 2일 사랑의 광장에서 치매예방 및 관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치매로부터 안심하고 함께 극복하기 위한 남원만들기인 '아름다운 동행'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기념식 행사뿐만 아니라 치매환자를 가정에서 오랫동안 돌보아 온 가족의 공로를 기리기 위한 시상도 준비해, 치매환자는 인간으로서 존중 받고 지역사회에서 같이 어우러져 살아가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계획이다.

특히, 남원시는 치매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당당한 치매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치매어르신 부부 8쌍에 대한 리마인드 웨딩을 준비해 자신들이 살아온 인생의 소중한 기억을 되찾아 주고 아름다운 추억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며, 시민 모두가 참여해 즐길 수 있는 치매예방·정보·체험 부스를 운영해 시민들에게 일상생활 속 치매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치매극복을 위한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가 치매환자 돌봄

문제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치매예방과 관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해 시민들이 건강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남원시는 지난해 11월 치매안심 센터를 보건소 내에 개소하고,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에서 관리까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소독에 상관없이 치료에 필요한 치료비와 조호물품을 확대 지원해 치매환자 보호와 가족의 경제·심리적 부담을 줄여나가고 있다.

또한 치매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치매쉼터를 센터 내 뿐만 아니라 교통 및 접근성의 문제로 이용하지 못하는 읍·면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는 권역 치매쉼터를 전라북도 최초로 운영 중이다.

이순례 보건소장은 "치매에 대한 조기검진과 다양한 예방 및 관리 서비스로 지역 어르신들이 치매 걱정 없이 건강한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지역 매 아리

#### 순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회의

순창군은 지난 24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철저한 준비를 위해 사전 기획회의를 가졌다.

군에 따르면 이날 재난대응에 필요한 관계기관인 순창119안전센터, KT순창지사, 한국전력순창지사, 제773부대 2대대 등 5곳이 참석했다.

회의는 10월 28일부터 시작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세부추진일정과 시나리오의 적정성 등에 대해 각 유관기관별 의견수렴과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각종 재난 및 사고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종합훈련으로, 올해는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5일간 실시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노홍래 부군수는 "많은 부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만큼 재난대응을 위해 문제점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은 본 훈련 전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해 성공적인 훈련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안전한국훈련기간 중 군청사 내 화재 발생에 의한 재난대응을 집중적으로 훈련할 계획이며, 10월 중 전체 관계 기관 회의를 두 차례 더 진행할 방침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 임실군의회 주요사업장 방문

임실군의회(의장 신대용)는 제292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23일 관내 주요 사업장 3개소를 방문하여 군정현안 및 부진사항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실군의회 의원들은 △전라북도 국제양궁장 속소건립 △임실N치즈 유통센터 주차장(임실역 옹기전시장) △사선대 생태공원 캠핑장을 현장 방문하여 관련 부서장의 사업 추진 경과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을 꼼꼼히 살핀 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날 첫 번째로 방문한 전라북도 국제양궁장 속소건립 사업장에서 군의회 의원들은 속소건립 사업은 국제양궁장이 건립되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것으로 관련부서에서는 내년 도예산 편성 시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줄 것과, 속소건립 시 예정 부지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임실N치즈유통센터 주차장의 임실역 옹기전시장에 방문하여 시설의 활성화와 내방객 등의 안전사고 위험 예방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했다.

신대용 의장은 "이번 현장방문지 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현안에 대하여 더욱 꼼꼼히 살피고 더욱 활기찬 임실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장류축제, '장류'로 성공 이끈다

## 오늘 군청서 축제 추진상황 점검 대표프로그램 변화 주목

순창장류축제가 개막까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는 26일 부군수 주재로 준비상황을 점검한다. 올해 14회째를 맞는 순창장류축제는 다음 달 18일부터 20일까지 순창고추장민속마을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 순창장류축제는 순창발효소스 세계박람회와 같은 기간 열려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와 다르게 장류 소재를 활용한 대표 프로그램을 새롭게 구성해 관광객을 맞는다. 장류축제라는 축제의 정체성에 걸맞게 순창장류 축제의 핵심인 '장'을 토대로 한 순창고추장 만들기 기획하여 종전 장류 주먹밥 모자이크를 '도전! 다함께 순창고추장 만들자!'로 변경한다. 이로 인해 아이들과 가족들이 축제장에서 고추장을 만들며, 고추장에 만들기에 대한 교육효과는 물론 체험에 축제만이 갖는 즐거움과 오락성을 가미하여 '장류'에 대한 즐거운 경험과 긍정적인 이미지를 각인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릴 계획이다.

여기에 체험을 통해 자신이 만든 고추장을 다음 해 축제에 돌려받는 타임캡슐 방법을 적용하여 재방문을 유도할 계획이다.



올해 14회째를 맞는 순창장류축제는 다음달 18일부터 20일까지 순창고추장민속마을 일원에서 열린다.

또한 종전 2018년분 떡볶이 만들기는 '지상최고의 떡볶이 오픈파티'로 변경한다. 전국 골목의 숨겨진 떡볶이 맛집들을 초청하여 축제기간 떡볶이 거리를 상설로 진행하고 축제 둘째 날인 19일 11시에는 부대 앞에서 맛 집들이 떡볶이 만드는 과정을 공개하고 시식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해 관광객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시킨다는 전라이다.

우리 전통소스인 장류를 테마로 한 축제인 만큼 장류소스 숯불구이 체험존 등 순창만의 독특한 음식문화를 맛볼 수 있는 먹거리 부스도 개선, 강화해 순창만의 특징이 묻어나는 축제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장류 댄스 경연대회 유치 등 올해 달라지는 축제의 주요 내용들을 공유하고 세부실천 계획을 논의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사회복지관, 시설평가 최우수 등급

남원사회복지관이 시설평가에서 최우수(A) 등급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시행한 이 평가는 3종 5가지 등급으로, 시설, 재정, 서비스 등의 다양한 지표를 바탕으로 평가해 최우수(A) 등급을 받는 것은 종합적으로 뛰어난 운영을 했음을 의미며, 강정아 남원사회복지관장은 이러한 공로로

제16회 남원시 사회복지의날 기념행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는다.

그동안 남원사회복지관에서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육구에 따른 사례관리, 방과 후 마을학교, 마을 도서관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뛰어난 성과를 일궈내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만족도 또한 높은 편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 국유림 명품숲 산악관광지로 탈바꿈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인옥)은 지난 24일 무주 덕유산 국유림 명품 숲에서 지방산림청장, 소속 국유림관리소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유림 경영비전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덕유산 권역에 분포하고 있는 독일 가문비 숲 등 80여년의 역사를 지닌 국유림 명품 숲이 뛰어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술

용으로만 활용, 이를 지역 상생발전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숲은 80여년 전 주요 유람수중에 대한 시험 조림으로 탄생한 적지에 맞는 조림수종 시험사설 및 80여년 동안 식생변화를 알 수 있는 국내 유일한 숲이며, 독일가문비, 낙엽송, 리기다소나무, 잣나무, 편백나무 등 총 8개소로 총 100ha가 조성되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